

### 공동체 소식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 미사중 사제직을 위한 2차헌금(Priesthood: past, Present & Future)

성주간/파스카 준비 및 도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부활꽃봉헌 : 김화년 요안나(\$50), 한춘희 라파엘라(\$30), 이영민 엘리사벳(\$20), 최은미 아녜스(\$50)

- 복사단 부활선물로 정연숙 막달레나 자매님이 \$200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28일(일)

- 28일(일)까지 매일 자비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 평일 미사/후원감사

- 23일(화)~25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과테말라 선교 후원으로 문석찬 요셉(\$500), 김화년 요안나(\$200) 고맙습니다.

#### 평협회 안내

2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성모의 밤 안내

일시 : 5월 4일(토) 저녁 7시 30분

성모의 밤 미사에 성모님께 드리는 시, 편지글이나 노래 또는 연주로 봉헌해 주실분은 전례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교리 교육있습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준비에 함께 합니다.

#### 중남부 남성 제16차 꾸르실료 신청 안내

일시 : 5월 30일(목)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5시

장소 : Formation Center 901 S. Madison Ave. Dallas, TX, 75208

대표지도사제 : 고봉호 베드로 신부님

회비 : \$350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중에 꾸르실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는것이 좋습니다. 전례부에 참가 신청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25가정)

#### 구역모임 안내

2구역 : 26(금)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4구역 : 27(토) 7시, 김대연 요셉 가정

#### 전례 성가

|     | 입 당 | 예 물 | 성 체 | 파 건 |
|-----|-----|-----|-----|-----|
| 금 주 | 130 | 129 | 165 | 134 |
| 차 주 | 134 | 210 | 499 | 131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제2독서               |
|-----|-----------|--------------------------|
| 금 주 | 김주연(세실리아) | 고영방(스테파노)<br>김명은(안젤라)    |
| 차 주 | 김명은(안젤라)  | 김병철(베네딕토)<br>김경희(스콜라스티카) |

#### 주일미사 복사

|     | 향복사       | 시종복사               |
|-----|-----------|--------------------|
| 금 주 | 전체 복사     |                    |
| 차 주 | 차민서(임마누엘) | 정예진(한나)<br>김지안(요한) |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
| 차 주 | 홍순익(마르띠노), 김동술(요한) |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부활절, 행사 2조팀 (6조 - 9조) |
| 차 주 |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벽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 그림 묵상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오직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켜 이 세상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랑의 인간으로 살아갑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자료 : 배기현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ㄱ.37ㄴ-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 답 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생명의 말씀

##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머리에 재를 얹으며 시작했던 긴 사순 시기의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40일간의 보속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새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부활 대축일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부활의 내용이고 네 복음서 모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치워진 돌과 비어있는 무덤은 마치 기적과 같은 사건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거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향해 갑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어둠과 빛을 통해 상징적으로 등장인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어둠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절망과 상실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녀의 말을 통해서도 잘 표현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비어있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로 전해지는 '사랑받은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고 베드로도 도착합니다.

이다음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먼저 도착하기는 했지만, 무덤 안을 바라볼 뿐,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아마포와 따로 떨어진 얼굴을 썼던 수건을 봅니다. 요한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무덤 안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몸을 썼던 아마포와 얼굴의 수건은 실제적인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라자로를 살리셨을 때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요한 11,44)

요한복음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 외에도 죽은 이를 감쌌

던 아마포와 수건이 개켜져 있다는 것이 부활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처럼 표현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도 부활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나 죽은 이를 감쌌던 수건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부활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 외에 부활을 나타내는 더 적절한 표현은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직, 부활이 무엇인지 몰라도.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직, 그것이 희망인지 몰라도.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직, 당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도.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 20,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느님,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노력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삶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동안 하루를 마치며 묵주 기도와 함께 올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맞는 인연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방송인 오수진으로서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스스로 벽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짝을 찾는 과정이 억지스럽다고 느껴졌을 때, 배우자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어느 곳엔가 있을,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을 지켜달라는 기도이며 나 역시도 그 상대에게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충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의 사람, 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도해주실 그 상대방을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하고 준비한다는 이 기도문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달하지 않고 하느님이 인도해주실 것이라 기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지금 제 배우자가 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덕에 순탄히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혼인성사를 2주 앞두고 제가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다투게 되었습니

다. 한 달 가까이 의식 없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결혼 날짜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네, 떠나도 되네."

당시 제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베드로는 "제가 구하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전해 들었던 이 대화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감동적입니다.

제 배우자 베드로는 하느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대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르 11,24 참조)

하느님이 어디까지 역사하셨는지, 저는 그 큰 뜻을 결코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하느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생의 힘든 시간들 동안, 신앙이 삶을 이해하는 공통의 바탕이 되며,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서로의 바탕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가정에도 평화를 빕니다!

오수진 아가다 | KBS 기상캐스터

##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손창배 바오로